

猷簋 銘文 ‘王曰’ 부분 研究*

金信周**

目 录

1. 緒論
2. 猷簋 概況
3. 猷簋 銘文 考釋
4. 結論

1. 緒論

1978년 5월 陝西省 扶風縣 法門公社 齊村에서 한 농부가 저수지를 손보던 중 뜻밖에도 西周 시기의 灰坑(灰窖)을 발견하게 된다. 저수지 서북쪽에 위치한 약 3m 깊이의 이 灰坑에서는 다량의 문물이 출토되었고, 그 중 눈에 띄게 큰 銅簋가 발견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猷簋이다. 猷簋는 지금까지도 ‘簋王’으로 불리며, 규모뿐만 아니라 명문의 내용 및 斷代 연구 등에 있어서도 뛰어난 학술적 가치를 자랑하고 있는 중요 기물 중의 하나이다. 특히 다른 명문에서는 보이지 않는 독특한 어휘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현재는 扶風縣博物館에 소장되어 있으며, 羅西章¹⁾의 소개 보고서가 발표된 이래 張政娘, 王愼行, 張亞初, 何琳儀·黃錫奎²⁾ 등이 명문 해석과 관련한 문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서울女子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助教授

1) 羅西章, 「陝西扶風發現西周厲王猷簋」, 『文物』(第4期, 1979), 89~91쪽 참조.

2) 각각의 문장은 순서대로 다음과 같으며, 이후 본고에서 인용 시 특별한 표기가 없는

장을 발표하였고, 馬承源, 劉翔, 王輝, 秦永龍, 侯志義, 陳英傑³⁾ 등도 각자의 저서에서 해석을 제시하였다. 또, 동일인물이 제작한 것으로 보는 獸鐘(『殷周金文集成』⁴⁾1.260) 및 五祀獸鐘(1.358)과 함께 그 제작 시기를 논하는 의견들도 지금까지 꾸준히 개진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동안 발표되었던 학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獸簠 명문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시도함은 물론, 개별 글자에 대한 최신 연구 성과 등을 반영함으로써 가장 합리적인 해석을 모색해보고, 이에 상응하는 타당한 한국어 풀이도 제시해보고자 한다. 다만, 그간 異見이 비교적 많았거나 자세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명문 전반부의 王이 말한 내용에 집중적으로 출현하므로, 본고 또한 효율적인 연구의 진행을 위해 그 범위를 이에 국한해 기술 하도록 하겠다.

2. 獸簠 概況

이 기물의 전체 높이는 59cm이며, 口徑은 43cm, 배의 깊이는 23cm, 배의 최대 둘레는 136cm이다. 양쪽에 각각 큰 귀가 있으며, 귀의 아랫부분에는 귀

한, 이들 문장에서 가져온 것이다. 張政娘, 「周厲王胡簠釋文」, 『古文字研究』, 第3輯 1980; 王愼行, 「獸簠銘文考釋」, 『人文雜誌』, 第5期, 1980; 張亞初, 「周厲王所作祭器獸簠考—兼論與之相關的幾個問題」, 『古文字研究』, 第5輯, 1981; 何琳儀·黃錫全, 「獸簠考釋六則」, 『古文字研究』, 第7輯, 1982.

3) 각각의 문장은 순서대로 다음과 같으며, 이후 본고에서 인용 시 특별한 표기가 없는 한, 이들 문장에서 가져온 것이다. 馬承源, 『商周青銅器銘文選(三)』, 北京, 文物出版社, 1988, 277~279쪽; 劉翔·陳抗·陳初生·董琨, 『商周古文字讀本』, 北京, 語文出版社, 1989; 王輝, 『商周金文』, 北京, 文物出版社, 2006; 秦永龍, 『西周金文選注』,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92; 侯志義·劉士義·張洲·曹雄菊, 『西周金文選編』, 西安, 西北大學出版社, 1990; 陳英傑, 『西周金文作器用途銘辭研究(下)』, 北京, 線裝書局, 2008, 842~854쪽.

4) 본고에 인용된 청동기 명문 중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에서 편찬한 『殷周金文集成』(北京: 中華書局, 1984~1994)의 탁본을 참고로 한 것은 이하 따로 서명을 표기하지 않고, 탁본 번호만을 명기하도록 하겠다.

고리 장식이 달려 있다. 귀의 길이는 43cm, 넓이는 18cm, 두께는 5cm이며, 두 귀의 사이는 75cm이다. 기물 아래에는 方形的 座臺가 받치고 있으며, 길이는 45cm이고, 높이는 21cm이다. 기물이 출토되었을 때는 이미 조각이 난 채 훼손된 상태였으며, 복원 후의 무게는 60kg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양을 살펴보면, 목 부분과 발 부분에 竊曲紋이 장식되어 있고, 배 부분과 좌대에는 直稜紋이 새겨져 있다. 또, 좌대의 네 귀통이에는 獸面紋이 보인다.

이 기물의 제작자는 獸鐘(1.260) 및 五祀獸鐘(1.358)의 제작자와 동일인물로서, 獸鐘의 제작 시대에 대한 검증을 통해 이 簋의 주조 시대도 함께 유추해 볼 수 있다. 獸鐘의 제작 시대에 관해서는 크게 昭王說과 厲王說의 견해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厲王說을 견지하는 가운데⁵⁾, 吳其昌, 郭沫若,

5) 厲王說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견해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于省吾, 『雙劍詒吉金文選』, 北京, 中華書局, 1998, 上一·一; 容庚, 『商周彝器通考』,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8, 41쪽; 陳夢家, 『西周銅器斷代』, 北京, 中華書局, 2004, 310~314쪽; 白川靜, 『金文通釋(卷二)』, 東京, 平凡社, 1967, 260~285쪽; 柯昌濟, 『籀華閣集古錄跋尾』, 香港, 崇基出版社, 1968, 甲·五~六; 唐蘭, 『西周青銅器銘文分代史徵』, 北京, 中華書局, 1986, 503~507쪽; 穆海亭·朱捷元, 「新發現的西周王室重器五祀獸鐘考」, 『人文雜誌』, 第2期, 1983, 121쪽; 高明, 『中國古文字學通論』,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2, 397~399쪽; 馬承源, 『商周青銅

楊樹達, 方繼成, 楊紹萱, 葉正渤⁶⁾ 등은 昭王說을 주장하였다⁷⁾. 이러한 의견 차이는 다음의 세 가지 요소에서 기인한다.

첫째, 猷鐘 명문 중의 ‘邵王’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이다. 昭王說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邵王’을 ‘昭王’이라고 보며, 厲王說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邵(昭)’를 ‘見王’, 즉 ‘王을 알현하다’의 의미로 해석한다.

둘째, 세 편의 명문 중에 인명으로 등장하는 ‘猷’가 昭王의 이름인 ‘瑕’인가 아니면 厲王의 이름인 ‘胡’인가 하는 것이다. ‘瑕’와 ‘胡’는 모두 匣母魚部에 속하는 글자로서, ‘猷’의 聲符를 ‘害聲’(匣母月部)로 본다면 세 글자의 성모가 같게 되고, ‘夫聲’(非母魚部)로 본다면 모두 같은 운부에 속하게 된다. 唐蘭은 청동기 명문 중 ‘簠’를 ‘匱’(9.4572 季宮父簠)나 ‘匱’로 쓰는 예를 들며, ‘猷’는 ‘胡’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다⁸⁾. 劉雨는 왕의 호칭에는 몇 가지가 있음을 논증하며, ‘邵王’을 厲王 생존 시의 美稱으로 보았는데⁹⁾, 一說로 참고할 만하다.

셋째, 서주 초기의 紀年 방식을 따른 것에 대해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 청동기 명문에서 제작 연대를 기록할 때, 서주 초기에서 대략 穆王 시기까지는 주로 ‘祀’를 사용했고, 그 이후로는 ‘年’을 사용했다. 猷簠 명문은 말미에 ‘祀’

器銘文選(三), 北京, 文物出版社, 1988, 279~280쪽; 洪家義, 『金文選注釋』, 江蘇, 江蘇教育出版社, 1998, 294~304쪽; 秦永龍, 『西周金文選注』,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92, 147~155쪽; 劉啓益, 『西周紀年』, 廣州, 廣東教育出版社, 2002, 374~376쪽; 彭裕商, 『西周青銅器年代綜合研究』, 成都, 巴蜀書社, 2003, 389~390쪽.

6) 吳其昌, 『金文曆朔疏證』, 臺北,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1992, 226쪽; 郭沫若, 『兩周金文辭大系考釋』,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1999, 51쪽; 楊樹達, 『積微居金文說』, 北京, 中華書局, 1997, 117쪽; 方繼成, 『關於宗周鐘』, 『人文雜誌』, 第2期, 1957, 46쪽; 楊紹萱, 『宗周鐘、散氏盤與毛公鼎所記載的西周歷史』, 『北京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4期, 1961, 25~26쪽; 葉正渤, 『金文標準器銘文綜合研究』, 北京, 線裝書局, 2010, 112~116쪽 참조.

7) 昭王說과 厲王說외에 郭偉川(『宗周鐘(周王猷鐘)新考』, 『華學』, 第8輯, 2006, 26~37쪽)은 穆王說을 주장하였고, 李朝遠(『“猷簠爲厲王之器”說獻疑』, 『古文字研究』, 第24輯, 2002, 220~224쪽; 『五祀猷鐘新讀』, 『華學』, 第7輯, 2008, 104~116쪽)은 猷簠와 五祀猷鐘을 서주 중기의 非王器로 규정하였다. 穆王說과 非王器說은 본고에서 논의로 하기로 한다.

8) 唐蘭, 『周王猷鐘考』, 『國立北平故宮博物院年刊』, 第6期, 1936, 13쪽 참조.

9) 劉雨, 『金文中的王稱』, 『故宮博物院院刊』, 第4期, 2006, 12쪽 참조.

를 이용해 紀年을 하고 있는데, 이는 서주 초기의 특징을 띠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獸籀는 厲王 시대의 기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명문에 사용된 어휘들을 살펴봤을 때, ‘𪚩𪚩’, ‘𪚩𪚩’, ‘𪚩保’, ‘𪚩才立’, ‘𪚩才下’ 등과 같이 서주 말기의 유행 특징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어휘들이 사용되었으며, 기물의 형태 또한 서주 중기 이후 혹은 서주 말기의 풍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紀年 방식의 경우도 후대의 사람들이 앞 시대의 유행 방식을 되풀이한 일종의 復古라고 본다면 서주 말기에도 충분히 출현 가능한 형식이라고 보인다. 후대의 사람들이 과거의 전통이나 정해진 틀을 답습하거나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백여 년의 시간을 뛰어 넘어 미래에 유행하거나 출현할 어휘들을 미리 사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정해진 격식과 틀에 따라 제작되었던 청동기 명문의 보수적인 성격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3. 獸籀 銘文 考釋

獸籀 銘文은 기물 바닥에 주조되어 있는데, 12行 124자로 合文과 重文이 각각 1字씩 쓰였다¹⁰⁾. 명문의 끊어 읽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대부분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다만 이견을 보이는 몇 군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여러 釋文을 비교하여 가장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隸定과 끊어 읽기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0) 合文은 제1행의 여섯 번째 글자인 ‘𪚩’의 외에 제8행의 훼손된 첫 번째 글자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을 제기한 학자들도 있다. 이에 대해선 다음 편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다.



王曰：“有余佳季，余亡康晝夜，罔饗先王，用配皇天，箕滸朕心，墜于四方，隸余曰饗士、獻民，再蓋先王宗室。”
 馱乍鬻彝寶毀，用康惠朕皇文刺且考，其各前文人，其瀕才帝廷陟降，鬻皇口大魯令，用齡保我家、朕立、馱身，陟降余多福，害章字慕遠馱，馱其萬年，鬻實朕多禱，用奉壽、句永令，眈才立，乍震才下。佳王十又二祀。

‘王曰’의 내용은 제4행의 맨 끝 부분인 ‘宗室’까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후로는 銘文 맨 끝의 紀年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물 제작자의 기원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앞서 밝힌 대로 논의점이 집중 포진된 ‘王曰’의 내용만을 대상으로 개별 글자나 어휘에 대해 諸說과 기타 명문 자료 및 전래문헌을 참고하여 타당한 해석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적절한 한국어 번역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3.1 王曰: 有余佳季

(1) 王: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기물을 王이 기물의 소유주(器主)가 되는 소위 ‘王器’로 판정한다. 만약 ‘王器’라면, 이 ‘王’의 이름은 명문 후반부의 ‘馱乍(作)鬻彝寶毀(簋)’, ‘馱身’, ‘馱其萬年’에 출현하는 ‘馱’가 된다.

(2) 有: 張政烺은 ‘舊’와 통가된다고 보았으며, 張亞初, 馬承源, 劉翔은 語氣詞로 보았다. 何琳儀와 黃錫全은 ‘有’는 일종의 감탄사로서, 『尙書·大誥』: “已, 予惟小子.”, 『康誥』: “已, 汝惟小子.”중의 ‘已’와 같다고 주장했다. ‘有’,

‘已’, ‘以’ 세 글자가 모두 古音 之部에 속한다는 점, 典籍 중에서 ‘有’가 ‘以’로 쓰인 다수의 예가 있는 점, ‘以’와 ‘已’가 본래 한 글자인 점을 근거로 이를 상세히 논증하였다. 또한, 감탄사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글자가 없이 음에 따라 운용하여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 『尙書』의 ‘已’가 다른 곳에서는 ‘熙’로도 쓰였음을 설명하였다.

전래문헌에서 ‘有’가 어기사로 쓰인 예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尙書·召誥』: “嗚呼! 有王雖小, 元子哉!”, 桐尊(11.6014) 명문의 ‘烏乎! 爾有唯(雖)小子’, 師穀籀(8.4311) 명문의 ‘女(汝)有佳(雖)小子’ 등이 그 예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인칭대명사+有+佳小子’의 구조가 獸籀 명문에서는 ‘有+인칭대명사+佳小子’의 구조로 어순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실제 의미상의 차이는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

(3) 佳: 여기서는 ‘雖’로 읽는다.

(4) 小: ‘小子’가 합문 형태로 쓰였으며, 王 자신을 낮춰 부른 謙稱으로 쓰였다. 금문에서 ‘小子’는 관직명, 인명, 1인칭 겸칭, 윗사람이 손아래사람에 대한 호칭 등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1인칭 겸칭으로 쓰였음을 감안하여 ‘부족한 사람’ 혹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 정도의 한국어로 풀이하였다.

【해석】王曰: 有余佳(雖)小(小子): 왕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비록 부족한 사람이지만

3.2 余亡康晝夜

(1) 康: 『說文』에서는 “康, 屋康衰也.(집이 매우 넓다)”, 徐鍇 『說文解字繫傳』에서는 “屋虛大也.”(집이 텅 비다)라고 풀이했으며, 여기서 ‘한가하다(閑逸)’란 의미가 파생되었다. 張亞初는 ‘福’을 ‘福’으로도 쓰거나, ‘親’을 ‘親’으로 쓰는 예를 들며, “宀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繁體와 簡體의 관계”라고 설명하고, “康은 ‘康’의 或體이자 통가자일 것”이라고 추측하였

다. 즉 ‘亡康’은 ‘감히 안일하지 못하다’(不敢康逸)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詩·周頌·昊天有成命』에 “成王不敢康, 夙夜基命宥密.”(성왕께서는 조금도 쉬지를 않고 밤낮으로 천명을 받들어 깊고 빈틈없는 덕을 쌓았네)란 구절이 있는데, 이와 뜻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2) 晝夜: 『說文』에 수록된 ‘晝’의 籀文인 ‘𠄎’의 자형에 근거해볼 때, ‘晝’임을 알 수 있다. ‘晝夜’는 다른 명문에서는 주로 ‘夙夜’로 쓰였다.

【해석】 余亡康(康)晝夜: 나는 밤낮으로 조금도 쉬지 않고

3.3 𠄎離先王

(1) 𠄎離: ‘𠄎’은 ‘經’의 初文이다. 학자에 따라 ‘항상(常)’ 혹은 ‘따르다, 준행하다(遵循)’의 뜻으로 해석하였다. ‘離’은 전래문헌에서는 ‘離’으로 쓰며(아래에서는 이 자형을 모두 ‘離’으로 표기하겠다), 이 글자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張政烺은 ‘擁’과 통가된다고 보고, ‘擁護하다’의 의미로 해석하여, ‘𠄎離先王’을 ‘常規를 따르고, 先王의 政令을 옹호하다’로 풀이했다. 劉翔은 『詩·召南·何彼禮矣』: “曷不肅離.”에 대해 毛『傳』이 “肅’은 ‘敬’이고, ‘離’은 ‘和’이다.”라고 풀이한 것을 근거로 ‘離’을 ‘雍(조화롭다)’의 의미로 보았다.

아래에서는 ‘經離’과 관련된 명문 용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經離’의 어휘 구조와 의미를 파악해보도록 하겠다. 일단 ‘經離’과 관련된 부분은 구체적인 해석을 하지 않은 다음의 명문을 보자.

- ① 余不段(暇)妄(荒)寧, 𠄎(經)離明德. 5.2826晉姜鼎 (나는 안일하게 경거 망동하지 않고 맑은 덕을 經離하였으며)
- ② 𠄎(敬)離德經(經). 5.2837大孟鼎 (덕의 법도를 敬離하며)
- ③ 辛乍(作)寶, 其亡(無)疆, 𠄎(厥)家離德. 5.2660辛鼎 (辛이 귀중한 것을 제작하니, 辛은 만수무강할 것이며, 우리 가문은 덕을 離하며)

‘經籒’은 欽籒 외에 晉姜鼎 명문에도 보인다. 역대로 대다수의 학자들은 ‘經’을 즉 ‘항상’이나 ‘늘’의 의미로 해석했고, ‘籒’은 ‘和’의 의미로 풀이했다¹¹⁾. 이렇게 해석한 근거는 앞서 언급한 劉翔과 마찬가지로 『詩』의 ‘肅籒’에 대한 毛『傳』의 풀이 때문이다. 그러나 『詩』의 ‘肅籒’을 살펴보면 ‘經籒’과는 의미 및 용법상으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 ④ 曷不肅籒! 王姬之車. 『召南·何彼襮矣』 (얼마나 위엄 있고 부드러운가! 공주님의 수레는.)
- ⑤ 於穆清廟, 肅籒顯相. 『周頌·清廟』 (아아, 아름다운 청묘에 경건하고 고상하며 덕이 밝은 제후들이 모였네.)
- ⑥ 嘒嘒厥聲, 肅籒和鳴, 先祖是聽. 『周頌·有瞽』 (딩딩 음악 소리가 엄숙하고 조화롭게 울리니 선조들께서 들으시네.)

위에서 보듯이 ‘肅籒’은 위엄 있고 조화로우움을 형용하는 어휘로서 목적어를 동반한 ‘經籒’과는 쓰임이 다르다. 또한, 의미에 있어서도 ‘肅’과 ‘籒’의 뜻이 각각 ‘敬’과 ‘和’라는 것만 고려하여 ‘經籒明德’에 적용시켜본다면 ‘항상 밝은 덕에 화합하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할 수는 있겠으나¹²⁾, 『詩』에서 쓰인 ‘肅籒’의 뜻과는 역시 거리가 있다.

다시 다음의 명문에 쓰인 ‘籒’의 의미를 살펴보자.

- ⑦ 今余唯籒(申)稟(就)乃令(命), 令女(汝)夷(惠)籒我邦小大猷. 8.4342師匱 (지금 나는 예전에 너에게 내렸던 명령을 다시 내리니, 너는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시책들을 이롭게 옹호하기를 명하노라.)
- ⑧ 女(汝)毋敢妄(荒)寧, 虔夙夕夷(惠)我一人, 籒我邦小大猷. 5.2841毛公鼎 (너는 감히 경거망동하거나 안일하지 말고, 경건한 마음으로 밤낮으로 나를 은혜롭게 하며,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계획들을 옹호하라.)

11) 于省吾, 『雙劍詒吉金文選』, 北京, 中華書局, 1998, 上二·十八; 郭沫若, 『兩周金文辭大系考釋』,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1999, 229쪽; 陳連慶, 『晉姜鼎銘新釋』, 『古文字研究』, 第13輯, 1986, 190쪽 참조.

12) 于省吾는 ‘常和于明德’으로, 陳連慶은 ‘經常和之以明德’으로 해석했다.

위의 문례들에서 ‘醜’은 ‘조화롭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서는 ‘醜’을 ‘擁’과 통가되는 것으로 보고, ‘지키다’ 혹은 ‘옹호하다’는 의미로 풀이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찬가지로 獸簋 명문을 비롯한 晉姜鼎, 大盂鼎, 辛鼎의 ‘醜德’을 ‘덕을 지키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훨씬 자연스러울 것이다. 정리하자면 ‘조화롭다’는 뜻의 ‘醜’은 ‘雍’과 통가되며, ‘지키다’는 뜻의 ‘醜’은 ‘擁’과 통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罔(經)’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까? ‘經醜’을 ‘부사+동사’의 구조로 볼 것인지, 아니면 張政烺의 주장대로 ‘經’과 ‘醜’이 각각 동사로서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고 함께 붙여 쓰이기도 하는 구조로 볼 것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아래 獸簋 명문의 문형 구조 및 의미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罔(經)’의 용례를 검토해보기로 하자¹³⁾.

- ⑨ 余佳(唯)罔(經)乃先祖考, 克(令)臣先王, 昔余既(命)女(汝), 今余唯(申)稟(就)乃(命). 9.4467師克盥 (나는 너의 조상이 선왕을 잘 모실 수 있었던 것을 마음에 두매, 과거 나는 이미 너에게 명령을 내렸었는데, 지금 그 명령을 다시 내린다.)
- ⑩ 女(汝)尸(夷), 余(經)乃先且(祖), 余既(專)乃(心). 1.272叔尸鐘 (너 叔夷야, 나는 너의 조상을 마음에 두매, 나는 이미 너의 마음을 믿노라)
- ⑪ 天子罔(經)朕先且(祖)服, 多易(賜)遯休命. 『近出殷周金文集錄』 1.106 遯編鐘 (天子께서는 나의 조상이 봉직한 것을 생각하사, 遯에게 큰 명령을 내리셨다.)
- ⑫ 今余佳(唯)罔(經)乃先聖且(祖)考, 黜(申)稟(就)乃(命). 『近出殷周金文集錄二編』 3.939 遯盤 (이제 내가 너의 훌륭한 조상을 생각하여 예전에 너에게 내렸던 명령을 다시 내리니)
- ⑬ 今余佳(唯)罔(經)乃先且(祖)考, 彝(功)于周邦. 『近出殷周金文集錄二編』 1.330 四十三年 遯鼎 (지금 내가 너의 조상이 주나라에 공을 세웠던 것을 생각하여)

용례(7)師克盥 명문의 ‘罔(經)’에 대해 于省吾는 ‘본받다(效法)’의 뜻으로 보았지만¹⁴⁾, 뒤의 문장과 의미가 이어지지 않을뿐더러 문형 구조가 유사한 다

13) 예를 들어 ‘經維’에서 ‘經’은 ‘경영하다’는 의미이므로, 본 논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른 명문에서도 뜻이 통하지 않는다. 특히 용례(9)에서와 같이 주어가 ‘天子’인 경우, ‘본받다’ 혹은 ‘모방하다’란 뜻은 더욱 어울리지 않는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례(7)~(11)에서 ‘甹(經)’은 문맥상 ‘생각하다’ 혹은 ‘마음에 두다’는 뜻으로 유추된다. 그러나 ‘甹(經)’의 이런 뜻은 아직까지는 전래문헌상에 보이지 않는다. 2003년 陝西省 眉縣 楊家村에서 용례(10)~(11)의 기물과 함께 출토되었던 四十二年遼鼎 명문의 동일한 위치에 ‘余佳(唯)聞乃先且(祖)考, 又(有)甹(功)于周邦’란 구절이 대응되는 것을 참고해볼 때, ‘聞’과 ‘甹(經)’은 비슷한 의미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만, ‘聞’ 자형의 隸定에서부터 뜻풀이까지 여러 가지 說이 존재하여 ‘甹(經)’의 정확한 의미 파악에는 어려움이 있다.

- ⑭ 今余唯肇(肇)甹(經)先王命. 5.2841毛公鼎 (이제 나는 선왕의 명령을 힘써 준행하여)
- ⑮ 不敢逸康, 肇堇(勤)經德. 9.4595 齊墜曼簠 (감히 안일하지 않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덕을 실행하고자)

용례(12)~(13)에서는 ‘부사어+甹(經)’의 형태로서 ‘甹(經)’이 ‘준행하다’는 의미의 동사로 쓰였다. 다시 다음의 명문을 보자.

- ⑯ 天子……甹(經)念孚(厥)聖保且(祖)師華父, 勗克王服. 5.2836大克鼎 (天子께서……그 聖明하신 保氏 師華父를 마음에 두시어 나 克을 왕을 보필하는 관직에 등용하셨다.)

위 大克鼎 명문의 ‘甹(經)念’은 ‘부사+동사’의 구조로 보아 ‘항상 생각하다’의 뜻으로도 볼 수 있고, ‘甹(經)’과 ‘念’의 두 개의 동사가 同義連用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결국 지금까지의 금문 자료에서는 ‘항상’, ‘늘’이란 뜻의 부사 용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甹(經)’의 확실한 증거는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절대 다수가 동사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經離’ 또한

14) 于省吾, 『師克盨銘考釋』書後, 『文物』, 第11期, 1962, 56~57쪽 참조.

‘늘 지키다(옹호하다)’의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분석한 ‘甞(經)’의 용법을 참고한다면 張政烺의 견해처럼 동사가 連用된 구조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해석】甞(經)醜(離)先王: 張政烺은 이 부분을 ‘常規를 따르고, 先王의 政令을 옹호하다’라고 풀이하었는데 가능한 해석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甞(經)’의 목적어로 인물이 올 경우 대개 ‘늘 마음에 품고 생각하다’는 뜻으로 쓰였으므로, 여기에서는 ‘선왕을 늘 마음에 품고 옹호하며’로 해석하도록 하겠다.

3.4 用配皇天

(1) 用: 접속사로서, ‘그래서(因而)’의 의미이다.

(2) 配: 『玉篇』에는 “合也.”로 풀이되어 있다. 『易·繫辭上』에는 “廣大配天地, 變通配四時.”(넓고 크은 하늘과 땅에 짝하고, 변하여 통함은 네 계절에 짝한다)라는 내용이 보이며, 『詩·周頌·思文』의 “思文后稷, 克配彼天.”(문덕이 높으신 후작께서 능히 저 하늘의 짝이 되셨네)와 『大雅·皇矣』의 “天立厥配, 受命既固.(하늘이 그 배필 정하시니 천명이 참으로 견고하네)” 등의 구절도 보인다. 이에 대해 戴震은 “‘配’는 ‘配命’·‘配上帝’의 ‘配’이며, 하늘의 마음에 합한다는 뜻으로, 하늘이 그 마음에 부합하는 자를 세워야만 받은 天命이 굳 견해져서 만드시 나중에 번성하게 됨을 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¹⁵⁾.

(3) 皇天: ‘皇’에는 ‘大’, ‘美’의 뜻이 있으므로, ‘皇天’은 하늘을 높여 부르는 말이 된다.

【해석】用配皇天: 하늘의 뜻에 맞추었다. 즉 ‘亡康(康)晝夜, 甞(經)醜(離)先王’과 같은 노력을 통하여 하늘의 뜻에 부합하였다는 뜻이다.

15) 戴震, 『毛鄭詩考正』, 合肥, 黃山書社, 2010, 卷三·九 참조.

3.5 箕滿朕心

(1) 箕滿: 학자들이 대부분 '箕'로 隸定하고 있으나, '黃'字 위의 자형이 일 반적인 '竹'과는 약간 다른 점이 눈에 띈다. '滿'는 徐籀莊과 劉心源이 이 자형 을 考釋해낸 이후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를 따르고 있다¹⁶⁾. '箕滿'는 여타 다른 명문에는 보이지 않는 어휘로 이에 대한 해석 또한 분분하며, 크게 다음 의 네 가지 견해로 요약될 수 있다.

張政烺은 '箕'은 '橫'으로 읽고, '滿'는 '至'나 '致'로 읽었다. 『禮記·孔子問 居』: “夫民之父母乎, 必達於禮樂之原, 以致五至而行三無, 以橫於天下, 四方有 敗, 必先知之, 此之謂民之父母矣……志之所至, 詩亦至焉.”(백성의 부모란 만 드시 예악의 원리에 통달함으로써 五至에 이르고 三無를 행하여 천하에 널리 퍼고 사방에 禍가 있으면 이를 만드시 먼저 아니, 이를 백성의 부모라 하는 것이다……뜻이 이르는 곳에 詩 또한 이른다)에 대하여 鄭玄이 “橫, 充也.”라 고 한 것을 근거로 '箕'을 '充'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滿'에 대해서도 역시 鄭 玄이 말한 “凡言至者, 至于民也. 志謂恩意也. 言君恩意至於民.”(‘至’라 함은 백 성에 이르는 것이며, ‘志’는 恩意를 가리키는 것으로 군주의 恩意가 백성에 이 름을 말하는 것이다)에서의 ‘至’의 의미와 가까운 것으로 보았다.

郝士宏은 張政烺의 주장을 보충하면서, 『禮記·祭義』의 “夫孝, 置之而塞乎 天地, 溥之而橫乎四海.”(무릇 효는 세우면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고, 퍼뜨 리면(넓히면) 사해 안의 전체에 퍼진다)를 참고해 ‘置’와 ‘塞’는 ‘縱深’의 이미 지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滿’는 ‘置’와 통가될 수 있으며, ‘溥’와 ‘橫’은 ‘橫廣’ 의 이미지로서 ‘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¹⁷⁾. 결국 ‘箕滿’는 ‘充置’로 통가될 수

16) 周法高主編, 『金文詁林(中)』, 京都, 中文出版社, 1981, 1315쪽 참조.

17) ‘置’……與‘塞’連用, 其搭配似乎都是表示靜態的事物, 或是有‘縱深’方向上的含意, 而‘溥’和 ‘橫’更強調動態與‘橫廣’方向上的意義, 『禮記·祭義』文句上下二句連用, 似乎動靜, 縱橫之感 覺尤爲顯……‘箕滿朕心’試譯作‘(皇天的恩澤)充置我心, 並延及四方’. 商周之時, 上層統治者 多把自己的‘政績’說成是上帝或是先祖給予的恩賜. (郝士宏, 「“箕滿朕心”解」, 『古文字論集 (二)』(考古與文物叢刊第4號), 2001, 63~64쪽)

있으며, 하늘의 은혜가 나의 마음을 횡으로 넓히고 종으로 깊게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張亞初는 ‘簧’은 ‘黃’으로 읽고, ‘美’와 ‘光’의 뜻으로 해석했고, ‘齋’는 ‘자수’란 의미에서 파생된 ‘盛美’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또, 馬承源은 『國語·吳語』의 “以廣侈吳王之心.”(오나라 왕의 야심을 크게 하도록 하다)를 참고해 ‘簧齋’을 ‘廣侈’로 읽었다. 韋昭 『注』에서는 “侈, 大也.”라고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侯志義는 ‘簧齋’를 ‘廣啓’로 읽을 수 있으며, ‘簧齋朕心’은 癩鐘 명문의 ‘廣啓癩身’과 같다고 주장했다.

‘簧’과 ‘齋’가 여기서는 본의나 이와 관련된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고, 글자의 정확한 해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명문 자료 또한 부재한 상황이므로 이 두 글자가 각각 어떤 글자와 통가되는지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다음의 몇 가지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그 구체적인 의미를 추정해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첫째, ‘簧’은 ‘橫’ 혹은 ‘廣’ 중 어느 글자와 통가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는 ‘널리 하다’ 혹은 ‘넓히다’의 뜻을 지닌다. 張政烺이 근거로 삼은 『禮記』중의 ‘橫’도 결국 온 천하에 널리 퍼져 덮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鄭玄이 ‘橫’을 ‘充’으로 해석한 데서도 그 뜻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齋’의 의미에 관해서는 위의 견해 중 비교적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張政烺, 郝士宏, 馬承源의 해석이다. 張政烺이 말한 ‘至’ 혹은 ‘致’는 은혜와 덕을 베풀고자 하는 군주의 생각과 마음(恩意)이 백성에게까지 미친다는 의미로, 뒤에 이어지는 ‘隆于四方’의 뜻과도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鑿’는 ‘施’와 통가되며, ‘미치다’, ‘퍼지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먼저 ‘朕心’이 널리 퍼져 백성에게 이르고(簧齋), 다시 범위를 확장해 온 천하에까지 미친다는 선명한 점층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높다. 郝士宏은 여기서 더 나아가 ‘簧’이 橫의 방향으로 넓히는 것이라면 ‘齋’는 縱의 방향으로 그 깊이를 더하는 것이라고 보았는데, 역시 ‘朕心’을 전방위적으로 확장시킨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명문의 의미에 부합된다.

고 할 수 있다. 또, 馬承源이 언급한 '侈'에는 '크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앞의 '霽'와 同義連用된 형태로 분석 가능하다. 다만 『國語』의 '廣侈'는 문맥상으로는 吳王을 자만하게 한다는 의미로 欽定 명문에서와의 의미 차이는 존재하지만, 上古중국어의 특성상 이 정도의 의미 활용은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기에 본고에서는 가능성 있는 해석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이밖에 다른 두 학자의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張亞初의 해석은 전래문헌상의 근거가 박약하다는 점과 '墜于四方'과의 문맥상 연관성이 다른 세 학자들의 해석보다 긴밀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고, 侯志義가 주장한 '廣啓'는 이 어휘의 절대 다수가 '廣啓某身, 勳于永命(命)'과 같이 고정된 형식으로 출현하여 '발양시키고 계도하여 관직에 영원히 등용되게 하다'는 뜻으로 쓰이므로 역시 여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해석】 簠(橫, 廣)霽(至, 致)朕心: 주어는 앞의 '皇天'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부분은 '하늘이 나의 마음을 널리 펴시어 (백성에게까지)이르게 했다'는 의미이다. 다시 앞의 내용과 연결시켜 보면 내(猷)가 밤낮으로 열심히 하늘의 뜻에 부합하고자했다니 하늘이 나의 (백성을 생각하는)마음을 '簠霽'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주셨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3.6 墜于四方

(1) 墜: 이 글자에 대한 해석은 크게 세 견해로 나뉜다. 羅西章, 王愼行, 何琳儀·黃錫全, 馬承源, 侯志義, 秦永龍이 주장한 '墜'字說과 張政煥, 孟蓬生の '墜'字說, 그리고 張亞初, 劉翹, 陳劍이 주장한 '墜'字說이 있다.

何琳儀·黃錫全은 금문의 여러 '豕' 자형을 근거로 '墜'로 隸定하고, '墜'는 '隊'와 같은 글자로서 '遂'와 통가된다고 보았다. '墜于四方'은 곧 『呂氏春秋·園道』의 "遂于四方"과 같으며, 高誘『注』의 해석에 근거해 '墜'를 '達'의 의미로 풀이했다.

張政烺은 이 글자가 侯馬盟書에 보이는 ‘地’의 이체자인 ‘墜’와 『說文』에서 ‘地’의 籀文으로 수록된 ‘墜’와 같은 글자라고 보았다. ‘地’가 ‘从土, 也聲’인 점, 縣紀篇(8.4269) 명문에 보이는 ‘墜’의 독음에 대해 『說文』이 ‘讀若弛.’라고 한 것을 참고로, ‘墜’를 ‘施’로 읽고, ‘墜于四方’은 『尚書·洛誥』의 “惟公德明, 光于上下, 勤施于四方.”(오직 공께서 덕이 밝아 천하에 빛나시며 부지런히 사방에 베풀어지니)과 의미가 유사하다고 보았다.

張亞初는 行氣玉銘, 侯馬盟書, 中山王響方壺 명문의 ‘墜’가 ‘地’로 사용되었음을 지적하고, 『爾雅·釋地』에 인용된 『物理論』: “地, 底也, 著也.”를 근거로 ‘墜于四方’은 ‘底著于四方’과 같다고 설명했다. 뜻은 금문 중의 ‘匍有四方’이나 『尚書·盤庚』의 “用永地于新邑.”(새 도읍지에 영원히 터를 잡았노라)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이후 이 글자와 관련된 문장에서 獸篇 명문을 언급한 학자들이 있었는데, 孟蓬生은 이 글자를 張政烺과 같이 ‘墜’로 보았으며¹⁸⁾, 陳劍은 기존에 ‘豕’ 혹은 ‘豕’로 해석되었던 글자는 모두 ‘豕’이며, 獸篇 명문의 이 글자 또한 ‘墜’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석상에 있어서는 張政烺의 의견에 찬동하면서 이 글자가 ‘地’의 이체자이기 때문에 역시 ‘它’를 聲符로 하는 ‘施’와 통가될 수 있다고 보았다¹⁹⁾.

가장 많은 학자들이 주장한 ‘墜’의 경우, 본 명문의 ‘豕’와 ‘豕’이 자형상 차이가 명확해 견해가 성립되기 어려우며, 張亞初의 경우에는 해석상 자연스럽지 못한 단점이 있다. 본래 大徐本 『說文』에서 ‘地’의 籀文으로 수록된 글자는 ‘墜’로서, ‘从墜’으로 분석되어 있다. 張政烺이 근거로 삼은 ‘墜’은 段玉裁가 임의로 고친 것으로, 자형 구조를 ‘从豕’聲으로 분석해 놓았는데, ‘地’는 歌部字이고, ‘豕’는 脂部字이므로²⁰⁾ 음운상의 거리 또한 멀다고 할 수 있다. 즉 張政

18) 孟蓬生, 「釋“豕”」, 『古漢語研究』, 第3期, 1998, 70쪽 참조.

19) 陳劍, 「金文“豕”字考釋」, 『甲骨金文考釋論集』, 北京, 線裝書局, 2007, 243~272쪽 참조. ‘地’, ‘池’, ‘施’는 본래 ‘它’를 聲符로 하는 글자였지만, 漢代 隸書 단계에 이르러 ‘它’로 簡化하여 쓰면서 뒤섞이며 구분이 없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它’와 ‘它’는 본래 다른 글자이며, 『說文』에서 ‘地’, ‘施’를 ‘从也聲’으로 본 것은 잘못된 분석이다. 裘錫圭, 『文字學概要』, 臺北, 萬卷樓, 1999, 97쪽 참조.

焞과 孟蓬生이 주장한 ‘墜’은 자형과 독음 제시에 있어 모두 오류를 보이고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므로 자형에 있어서는 陳劍의 견해에 따라 ‘墜’로 보되, 의미 해석에 있어서는 張政焞의 해석을 따라 ‘施’로 읽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해석】墜(施)于四方: ‘온 천하에 퍼졌다(미쳤다)’는 뜻으로, 전체적으로는 ‘亡康(康)晝夜, 罔(經)醜(醜)先王, 用配皇天’과 같은 天子로서의 도리를 다하였더니, 하늘이 ‘箕鬻朕心, 墜(施)于四方’하게 해주셨다는 일종의 인과 관계로 보여 진다.

3.7 隸余曰餼士、獻民

(1) 隸: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그래서’, ‘따라서’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전래문헌에서는 ‘肆’로 쓴다.

(2) 曰: 전래문헌에서는 ‘以’로 쓰며, 『說文』의 해석에 근거해 ‘用’의 뜻으로 해석하는 견해와 ‘與’의 뜻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본고에서는 뒤의 ‘稱(稱)蓋(調)’의 의미를 고려하여 후자의 뜻을 취하기로 하겠다.

(3) 餼: 기존의 字書에는 보이지 않는 글자로 학자마다 隸定을 달리한다. 羅西章, 王慎行, 馬承源, 侯志義는 ‘餼’로, 張政焞, 張亞初, 劉翔, 王輝는 ‘餼’로, 何琳儀·黃錫全, 秦永龍은 ‘餼’로 각각 隸定했다.

‘餼’로 考釋한 학자 중에서는 馬承源만 자형 구조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는데, “餼은 ‘从食豕聲’의 구조이다. ‘豕’字의 윗부분은 동물의 머리로, 이 명문에 보이는 ‘墜’의 ‘豕’와 ‘獻’의 ‘犬’ 머리 부분이 모두 동일하다. 오른쪽 아래의 긴 필획이 꼬리를 나타낸 것이고, 왼쪽의 두 개로 갈라진 필획은 두 발을 나타낸다.”라고 하였다. ‘餼’는 『說文』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글자인데, 馬承源은 ‘豕

20) ‘地’의 反切은 ‘徒肉切’로 定母歌部에 속하고, ‘豕’의 反切은 ‘式視切’로서 審母脂部에 속한다.

聲'이 '庶'와 통가되는 것으로 보고, '餼士'는 '庶士'이며, 곧 귀족의 의미로 해석했다.

張政烺은 이 글자를 '从食矣聲'의 구조로 파악하고, '餼'를 '義'로 읽었다. 張亞初는 『汗簡』의 '疑'도 이 자형을 취한 것을 근거로, '矣'은 '疑'와 같다고 보았다. 또, 이 글자는 손에 '丨'(지팡이)를 권 것과 그렇지 않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명문에서는 '丨'를 쥐지 않은 간화된 필법이 사용됐다."라고 설명하며, '大', '高'의 뜻을 지닌 '俟'와 통가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何琳儀·黃錫全은 '食' 옆의 자형이 원래 한 글자였던 '豕'와 '豨'가 分化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餼'는 '掾'과 통가된다고 보았다. 朱駿聲의 『說文解字通訓定聲』을 근거로 '掾'을 '보좌하다(佐助)'의 뜻으로 해석하면서, '掾士'는 곧 후대의 직관인 '掾史'라고 주장했다.

학자들의 견해가 위와 같이 갈리는 것은 '豕'의 상반부가 '豕'나 '豨'와 흡사할 수 있으나, 하반부는 '矣'와 유사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豕'나 '豨'는 모두 돼지를 상형화한 글자로, 고문자 중의 '豕'나 '豨'를 살펴보면 몸통부터 꼬리까지 돼지의 특징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으므로, 이 점에 있어 '豕'과는 거리가 있다. 또, '矣'에 대해 羅振玉은 '사람이 고개를 들고 옆을 살피는 형태로, 의심하는 모양(象人仰首旁顧形, 疑之象也.)'²¹⁾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았는데, '矣'과 관련된 고문자 자형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疑' (12.6480疑) (疑), '豨' (12.6490齊史疑且辛解), '疑' (7.3887伯疑父殷蓋)처럼 사람의 머리 부분 자형이 비교적 통일성이 있어 '豕'가 '矣'라고도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豕'나 '豨'보다는 '矣'에 가깝다고 판단되므로 여기에서는 '餼'를 '餼'로 考釋하는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餼士'를 張亞初는 '俟士'로 읽고, 張政烺은 '義士'로 읽었는데, '義士'는 전래문헌에서 그 기록을 찾을 수 있다. 劉師培는 『義士釋』에서 『左傳·桓二年』云: "武王克商, 遷九鼎于洛邑, 義士猶或非之." (무왕이 상나라를 쳐 이기고 구정을 낙읍으로 옮겼는데, 義士들 중에는 이를 비난하는 자

21) 羅振玉, 『殷虛書契考釋三種』, 北京, 中華書局, 2006, 上·203 참조.

가 있었다)에 대해 杜預가 義士를 伯夷, 叔齊같은 사람이라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周나라의 입장에서는 頑民이지만, 殷나라한테는 義士가 된다고 설명했다(杜預以義士爲夷齊之屬……由周而言則爲頑民, 由殷而言則爲義士)²²⁾. 즉 ‘義士’의 원래 뜻은 멸망한 殷의 귀족과 연관됨을 알 수 있다.

(4) 獻民: ‘獻’은 ‘獻’과 같은 글자이다. 『尙書·洛誥』: “其大惇典殷獻民.”(은 나라의 어진 백성들에게 매우 후한 예의를 행하시고)에서 孔安國은 ‘獻民’을 ‘賢人’으로 해석했고, 周秉鈞은 “‘獻民’은 ‘賢人’으로, ‘頑民’과 상대되는 것이며, 周에 복종하여 교화된 사람”이라고 했다²³⁾. 또, 『佚周書·作雒解』: “俘殷獻民, 遷于九畢.”(은의 獻民을 포로로 잡아 九畢로 옮겼다)에서 孔晁은 ‘獻民’을 ‘士大夫’로 풀이했다. 즉, 전래문헌상의 ‘獻民’은 殷 멸망 후 생겨난 遺民을 가리키는 말임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義士’와 ‘獻民’은 모두 殷의 世家大族를 가리키는 것이다. 張政烺은 이들을 厲王 시대에 아직 남아 있는 殷의 후예들로 보았는데, 이들이 예법에 밝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 亡國의 경계를 삼으려는 周王의 의도 때문에 祭禮에 동원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王輝는 周의 世族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필자 또한 王輝의 견해에 동의하는데, 명문 내용에 근거하면 이 獻簋는 周가 건국된 지 약 170여년이 지나서 제작된 것이므로, ‘義士’와 ‘獻民’을 殷의 遺民으로 보는 데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義士’와 ‘獻民’이 가리키는 정확한 귀족 계층을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서는 일단 周의 貴族世家를 지칭하는 말로 풀이하도록 하겠다.

【해석】 隸(肆)余曰(以)獻(義)士、獻(獻)民: 뒤의 ‘再整先王宗室(선왕의 종묘에 부합하여 조화를 이루었다)’의 의미를 고려해볼 때, 여기서는 ‘曰(以)’를 ‘與’의 뜻으로 보아 ‘그러므로 나와 사대부 귀족들’로 풀이하도록 하겠다.

22) 劉師培, 『左龔集(一冊)』, 北京, 中國書店, 2008, 卷一·十一 참조.

23) 周秉鈞, 『尙書易解』, 長沙, 岳麓書社, 1984, 219쪽 참조.

3.8 再整先王宗室

(1) 稱: 대부분의 학자들이 ‘稱’으로 읽지만, 구체적인 해석은 조금씩 다르다. 張政烺은 『爾雅·釋言』에 “稱, 好也.”라고 한 것을 근거로, ‘適當’의 의미로 해석하였고, 陳初生도 이 견해에 동의하며 현대중국어로 ‘好好地’의 의미로 풀이했다²⁴⁾. 張亞初는 ‘稱’과 ‘稱’은 원래 한 글자이며, 후에 人旁이 생략되어 稱이 되었다고 보았다. 또, 『說文』에서 ‘稱’은 “并舉也.”로, ‘稱’은 “揚也.”로 해석되어 있는데, 馬承源이 ‘稱’을 ‘宣揚’의 뜻으로 풀이한 것으로 보아, 『說文』의 해석을 근거로 삼은 것 같다.

施謝捷은 ‘稱’과 ‘稱’이 유의어가 連用된 형태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는데²⁵⁾,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稱’이 쓰인 다른 명문들을 살펴보면, ‘稱齋(調劑)’, ‘稱導(抽導)’, ‘憂稱(憂愁)’처럼 모두 비슷한 의미의 동사 두 개가 함께 쓰인 구조임을 발견할 수 있다. ‘昌孕切’로 읽히는 ‘稱’에는 위의 학자들이 언급한 것처럼 ‘好’의 의미도 있지만, ‘符合’의 뜻도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稱’을 同義連用의 구조로 간주하고, ‘稱’이 ‘調’와 통가되는 점을 고려하여, ‘稱’을 ‘부합하다’는 뜻으로 풀이하도록 하겠다.

(2) 整: 이 글자는 이와 자형이 매우 유사한 ‘整’과 함께 논의되곤 한다. 예를 들어, 馬承源은 이 글자를 아예 ‘整’로 考釋하고, 『說文』: “整, 讀若戾.”, 『廣雅·釋詁』: “戾, 善也.”를 근거로 ‘善’의 의미로 해석했다. 또, 張亞初는 ‘整’을 ‘至’의 파생의미인 ‘徧’이나 ‘遍’의 뜻으로 보았는데, 이 역시 ‘整’을 ‘整’로 보고, 다시 『爾雅·釋詁』: “戾, 至也.”를 근거로 해석한 것이라 추측된다.

그렇다면, 과연 ‘整’과 ‘整’는 같은 글자일까? 아래에서는 두 글자의 形音義를 비교하면서, 이와 관련된 몇몇 학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整’의 자형에 대해 『說文』에서는 “引擊也. 从幸、支, 見血也.”라고 설

24) 陳初生, 『金文常用字典』, 高雄, 復文圖書出版社, 1992, 444쪽 참조.

25) 施謝捷, 「釋“整”」, 『南京師大學報』, 第4期, 1994, 117쪽 注34 참조.

명하고 있다. 즉 죄인을 손에 刑具(幸, 幸)를 채우고 때려서(支) 피를 냄(血)을 나타내는 글자로, 금문에서는 원래 자형인 𩇛(8.4229史頌簋), ‘血’를 ‘皿’으로 바꿔 쓴 𩇛(獸籀), ‘血’이 생략된 𩇛(5.2787史頌鼎)이 보인다. 施謝捷은 ‘盪’의 왼쪽 상단 부분의 ‘糸’에 대해 ‘糸’과 ‘幸’이 필획을 공유한 것이라 분석했는데²⁶⁾, ‘盪’의 자형으로는 이 글자의 원래 형태인 𩇛(秦公罇), ‘幸’이 생략된 𩇛(8.4342師匚簋), ‘皿’이 생략된 𩇛(16.10175史牆盤)이 보인다. 자형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盪’과 ‘盪’의 자형상의 가장 큰 특징은 ‘糸’의 유무이며, 이러한 특징은 후대의 자형에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盪’는 戰國시기 趙國의 병기 명문에 출현한 𩇛를 비롯하여, 『玉篇』, 『龍龕手鑑』, 『正字通』과 같은 자서에 보이는 ‘盪’의 異體字에서 모두 ‘糸’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²⁷⁾. 반면, ‘盪’의 경우, ‘紘’(睡虎地秦簡 『司空』), ‘𩇛’(『集韻』), ‘盪’(『正字通』)처럼 공통적으로 ‘糸’를 글자의 구성요소로서 삼고 있어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金文編』에서는 ‘盪’에서 ‘盪’가 파생된 것이라고 보았고, 施謝捷 또한 ‘羌’, ‘執’, ‘訊’등의 글자에서 ‘糸’의 유무가 글자의 뜻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盪’과 ‘盪’는 본래 같은 글자였으나, 나중에 각기 다른 專用字로 파생되며, 음과 뜻에 구별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陳英傑은 이들 글자에서의 ‘糸’는 문자 구조와 의미상 중요 작용을 하지 않는 부수적인 것으로 ‘盪’, ‘盪’와 함께 거론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²⁸⁾. 또, 麻愛民은 ‘盪’의 다양한 省變 자형이 있는 만큼 ‘糸’가 생략된 ‘盪’도 ‘盪’의 省形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²⁹⁾, 위에서 설명했듯 ‘糸’의 유무는 두 글자를 구분하는 데 있어 가장 관건이 되는 부분이자 관련 자형 전반에 걸쳐 그 특징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으므로, ‘盪’에서 ‘糸’가 생략되어 ‘盪’가 되었다는 견해는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26) 施謝捷, 「釋“盪”」, 『南京師大學報』, 第4期, 1994, 113쪽 참조.

27) ‘盪’와 ‘盪’의 후대 자서에 나타난 이체자 자형은 中華民國教育部國語推行委員會의 『異體字字典』(<http://140.111.1.40/main.htm>)을 참조.

28) 陳英傑, 『西周金文作器用途銘辭研究(下)』, 北京, 線裝書局, 2008, 848쪽 참조.

29) 麻愛民, 「速盤補釋」, 『古籍整理研究學刊』, 第2期, 2011, 23쪽 참조.

다음은 자음면에서 두 글자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자. ‘齧’의 독음은 ‘張流切’로 端母幽部に 속하며, ‘齧’는 郎計切로 來母脂部に 속한다. 何琳儀는 端母와 來母가 모두 舌音에 속하고, 幽部和 脂部가 旁轉이 가능하기 때문에 ‘齧’는 ‘齧’를 聲符로 하는 글자로 볼 수 있으며, 다시 ‘齧’는 『集韻』의 ‘鞞(撻)’을 聲符로 하는 글자로, ‘鞞’, ‘齧’, ‘齧’는 모두 한 글자에서 발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³⁰⁾. 우선 『集韻』의 ‘鞞(撻)’이 ‘齧’의 聲符라는 견해에 대해 검토해보면, 麻愛民이 지적한대로 ‘齧’의 省形인 ‘鞞’의 왼쪽 편방은 죄인의 두 손에 채우던 刑具의 모양을 본 뜬 것이고, 『集韻』의 ‘鞞(撻)’은 ‘達’의 오른쪽 편방인 ‘夬’으로, 두 글자는 隸變으로 인해 자형이 같게 변한 것 일뿐 그 원류가 전혀 다르므로 ‘鞞(撻)’과 ‘齧’ 및 ‘齧’의 음운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다음으로는 ‘齧’와 ‘齧’의 독음에 대해 논하자면, 何琳儀가 여러 예들을 통해 幽部和 脂部の 旁轉 관계를 증명하였으므로³¹⁾, ‘齧’를 ‘齧(戾)’로 읽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史頌鼎과 史頌簋 명문의 ‘帥(率)龔(偶)鞞(齧)于成周’의 ‘鞞’에 대해 ‘戾’, ‘朝’, ‘游’ 등으로 견해가 분분한 것을 제외하고는³²⁾, 실제 문헌상에 나타난 ‘齧’의 독음은 幽部に 국한되어져 있다. 예를 들어, 『呂氏春秋·節喪』의 “蹈白刃涉血齧肝.”에 대해 高誘『注』가 “齧, 古抽字.”라고 한 것을 비롯하여, 趙國 兵器 명문 중의 ‘鞞齧’는 ‘調劑’로³³⁾, 秦駟玉版 명문 중 ‘永難憂齧’의 ‘憂齧’는 ‘憂愁’로³⁴⁾, 石鼓文의 ‘齧導’는 ‘抽導’³⁵⁾로 각각 읽히고 있다. 이밖에 陝

30) 何琳儀, 「述盤古辭探微」, 『安徽大學學報』, 第27卷 第4期, 2003, 11~12쪽 참조.

31) 何琳儀, 「幽脂通轉舉例」, 『古漢語研究』, 第1期, 1996, 356~357쪽 참조.

32) 馬承源(『商周青銅器銘文選』, 北京, 文物出版社, 1988, 300쪽)과 王輝(『商周金文』, 北京, 文物出版社, 2006, 238쪽)는 ‘齧’를 ‘齧’의 省形로 보고, ‘戾’로 읽고, ‘來’의 의미로 해석했다. 楊樹達(『積微居金文說』, 北京, 中華書局, 1997, 51쪽)은 ‘朝’로 읽었고, 郭沫若(『兩周金文辭大系考釋』,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1999, 72쪽)은 ‘齧’가 동사가 연용된 것으로 보고, ‘遨遊’로 읽었다.

33) 何琳儀, 「幽脂通轉舉例」, 『古漢語研究』, 第1期, 1996, 357쪽; 何琳儀, 『戰國古文字典』, 北京, 中華書局, 1998, 189쪽 참조.

34) 李零(「秦駟禱病玉版研究」, 『國學研究(第6卷)』,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 531쪽); 李學勤(「秦玉牘索隱」, 『故宮博物院院刊』, 第2期, 2000, 41쪽); 曾憲通·楊澤生·肖毅(「秦駟玉版文字初探」, 『考古與文物』, 第1期, 2001, 51쪽); 周鳳五(「秦惠文王禱祠華山玉版」新探,

西省扶風 지역의 盨屋縣이 오늘날에는 周屋縣으로 표기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렇듯 '盨'의 출토 및 전래문헌상에서의 독음이 '張流切'의 음에 가까운 幽部에 속하는 글자들로 읽히고 있는 것과 '盨'로 읽히는 예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盨'와 '盨'는 자형뿐만 아니라 자음에 있어서도 유별한 글자임을 추측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출토문헌상의 용례를 통해 두 글자의 의미를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元和群縣志』: “山曲曰盨, 水曲曰屋.”, 『廣雅·釋詁』: “盨, 曲也.”에서 보듯 '盨'와 '盨'에는 모두 '曲'의 의미가 있으며, 학자들은 이를 두 글자의 파생 관계를 뒷받침해주는 증거 자료로 삼아 왔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曲'의 의미가 있다는 것 외에, 두 글자의 용법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 '盨'는 '周', '調', '抽', '愁' 등의 의미로 해석되는데 반해, '盨'와 관련해서는 단 한 가지 용례만이 보인다. 예를 들어, '盨獻于政'(1.251 瘳鐘, 16.10175 史牆盤), '盨獻胤士'(1.262 秦公鐘), '盨和于政'(8.4342 師匱簠, 『近出殷周金文集錄二編』 3.939 逵盤) 등이 그것인데, '盨'의 해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론이 없다. 몇 가지 의견을 살펴보면, '周', '調', '戾', '利' 등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³⁶⁾, '周', '調'는 '盨'를 반대로 '盨'의 독음과 연관시켜 읽은 것이고, '戾', '利'는 '盨'의 본래 독음에 기초한 것이라 볼 수 있다.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 第72本 第1分, 2001, 226쪽); 李家浩(「秦駟玉版銘文研究」, 『北京大學中國古文獻研究中心集刊(2)』, 北京, 北京燕山出版, 2001, 102쪽); 郭永秉(「秦駟玉版銘文考釋中的幾個問題」, 『古文字與古文獻論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1, 38쪽)은 모두 '愁'로 읽었고, 王輝(「秦會孫駟告華大山明神文考釋」, 『考古學報』, 第2期, 2001, 147쪽)은 '周'로 읽었다.

35) 何琳儀, 『戰國古文字典』, 北京, 中華書局, 1998, 189쪽 참조.

36) 徐中舒(「西周牆盤銘文箋釋」, 『考古學報』, 第2期, 1978, 139쪽)은 '周'로, 何琳儀(「述盨西周辭探微」, 『安徽大學學報』, 第27卷 第4期, 2003, 12쪽)은 '調'로 읽었다. 唐蘭(「略論西周微史家族窖藏銅器群的重要意義—陝西扶風新出牆盤銘文解釋」, 『文物』, 第3期, 1978, 23쪽), 李學勤(「論史牆盤及其意義」, 『考古學報』, 第2期, 1978, 149쪽), 裘錫圭(「史牆盤銘解釋」, 『文物』, 第3期, 1978, 25~26쪽)은 모두 '戾'와 통가된 것으로 보았으나, 의미는 각각 '致', '善', '定'으로 다르게 해석하였으며, 于豪亮(「牆盤銘文考釋」, 『古文字研究』, 第7輯, 1982, 87쪽)과 麻愛民(「述盨補釋」, 『古籍整理研究學刊』, 第2期, 2011, 24~25쪽)은 '利'로 읽었다.

여기까지 ‘齧’와 ‘齧’를 비교 과정을 통해 우리는 두 글자가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은 분명하나, 명확히 구분되는 자형, 독음 및 용법을 각각 지닌 별개의 글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張政烺은 ‘齧’가 동사로 ‘調’로 읽히며, 井人 妄鐘(1.109) ‘寔處宗室’의 ‘寔’와도 통가된다고 보았는데, ‘齧’와 ‘寔’가 모두 端母에 속하기는 하나 의미상 공통점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寔’로 읽는 것은 재고되어야 하지만, ‘調’와 통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여러 견해 중 가장 타당한 듯싶다. 앞서 설명했듯 여러 문헌에서 ‘齧’는 幽部 글자와 통가되고 있으며, 더불어 ‘調’로 읽히는 확실한 용례(‘調劑’)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미에 있어서도 ‘調’를 ‘조화를 이루다’의 뜻으로 해석하면 ‘寔’의 통가자로 풀이하는 것보다 문맥상 훨씬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앞부분에서 하늘의 뜻에 부합한다는 ‘用配皇天’의 ‘配’와 의미상 호응도 이룰 수 있다.

(3) 宗室: 宗廟를 말한다. 豆閉籒(8.4276) 명문에 ‘萬年永寶用于宗室’이란 구문이 보인다. 『詩·召南·采蘋』: “于以奠之, 宗室牖下.”(이것들을 올릴 곳은 종실의 사당이요)에 대해 毛『傳』은 “宗室, 大宗之廟也.”(종실은 대종의 사당이다)라고 풀이하였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여기서 ‘宗室’은 공간적 의미의 종묘 혹은 왕실을 넘어서 종족, 즉 왕족 가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석】 稱齧(調)先王宗室: 선왕의 종묘에 부합하여(겉맞게) 조화를 이루었다는 뜻으로 왕실의 후손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처신하였음을 이른다.

4. 結論

지금까지 獸籒 명문의 전반부 중에서 왕이 말한 내용에 대해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해보고, 기존의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학설에 대해서는 필자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명문의 정확한 해석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獸籙는 기물의 규모뿐만 아니라,厲王 시기의 표준 기물로서 청동기의 주조 시대 판정에도 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명문에 있어서도 ‘箕鬻’, ‘饑士’, ‘稱鬻’와 같은 새로운 어휘가 출현하는가 하면, ‘墜于四方’과 같이 기존 연구를 새롭게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 자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도 매우 큰 가치가 있다.

일부 명확한 뜻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로 남겨두기로 하고,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명문에서 王이 말한 부분에 대한 隸定과 끊어 읽기 및 해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王曰：有余佳(雖)李(小子)，余亡康(康)晝夜，巫(經)饑(饑)先王，用配皇天，箕(橫，廣)鬻(至，致)朕心，墜(施)于四方。
隸(肆)余曰(以)饑(義)士、獻(獻)民，稱(稱)鬻(調)先王宗室。

【해석】 왕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비록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는 밤낮으로 조금도 안일하지 않고, 선왕을 늘 마음에 품고 (先王의 政命을) 옹호함으로써,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하늘의 뜻에 부합하였더니, (하늘이) 나의 마음을 널리 퍼시어 (백성에게까지) 이르게 하시고, 온 천하에까지 미치게 하셨다. 그러므로 나와 사대부 귀족들은 선왕의 종묘에 부합하여(결맞게) 조화를 이루었다.”라고 하셨다.

위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 처음부터 ‘用配皇天’까지는天子로서의 도리를 다하였음을 서술하고 있고, ‘箕鬻朕心，墜于四方’에서는 이로 인해 하늘이 내려준 은택을 기술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그 결과 왕실의 후예로서의 임무를 다할 수 있었다는 뜻을 피력하고 있다. 즉, 내용의 전체 구조가 王을 중심으로 하늘과 조상에 대한 점층적인 서술로써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柯昌濟, 『韞華閣集古錄跋尾』, 香港, 崇基出版社, 1968
- 高明, 『中國古文字學通論』,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2
- 郭沫若, 『兩周金文辭大系考釋』,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1999
- 郭永秉, 「秦駟玉版銘文考釋中的幾個問題」, 『古文字與古文獻論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1
- 郭偉川, 「宗周鐘(周王鞮鐘)新考」, 『華學』, 第8輯, 2006
- 裘錫圭, 『文字學概要』, 臺北, 萬卷樓, 1999
- 裘錫圭, 「史牆盤銘解釋」, 『文物』, 第3期, 1978
- 唐蘭, 「略論西周微史家族窖藏銅器群的重要意義—陝西扶風新出牆盤銘文解釋」, 『文物』, 第3期, 1978
- , 「周王鞮鐘考」, 『國立北平故宮博物院年刊』, 第6期, 1936
- , 『西周青銅器銘文分代史徵』, 北京, 中華書局, 1986
- 戴震, 『毛鄭詩考正』, 合肥, 黃山書社, 2010
- 羅西章, 「陝西扶風發現西周厲王鞮簋」, 『文物』, 第4期, 1979
- 羅振玉, 『殷虛書契考釋三種』, 北京, 中華書局, 2006
- 穆海亭·朱捷元, 「新發現的西周王室重器五祀鞮鐘考」, 『人文雜誌』, 第2期, 1983
- 白川靜, 『金文通釋(卷二)』, 東京, 平凡社, 1967
- 容庚, 『金文編』, 北京, 中華書局, 1985
- 容庚, 『商周彝器通考』,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8
- 劉啓益, 『西周紀年』, 廣州, 廣東教育出版社, 2002
- 劉師培, 『左龔集(一冊)』, 北京, 中國書店, 2008
- 劉翔·陳抗·陳初生·董琨, 『商周古文字讀本』, 北京, 語文出版社, 1989
- 劉心源, 『奇觚室吉金文述』, 臺北, 藝文印書館, 1971
- 劉雨, 「金文中的王稱」, 『故宮博物院院刊』, 第4期, 2006
- 劉雨·盧岩, 『近出殷周金文集錄』, 北京, 中華書局, 2002
- 劉雨·嚴志斌, 『近出殷周金文集錄二編』, 北京, 中華書局, 2010

- 李家浩, 「秦駟玉版銘文研究」, 『北京大學中國古文獻研究中心集刊(2)』, 北京, 北京燕山出版, 2001
- 李零, 「秦駟禱病玉版研究」, 『國學研究(第6卷)』,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
- 李朝遠, 「“欽簋爲厲王之器”說獻疑」, 『古文字研究』, 第24輯, 2002
- , 「五祀欽鐘新讀」, 『華學』, 第7輯, 2008
- 李學勤, 「論史牆盤及其意義」, 『考古學報』, 第2期, 1978
- 李學勤, 「秦玉牘索隱」, 『故宮博物院院刊』, 第2期, 2000
- 馬承源, 『商周青銅器銘文選』, 北京, 文物出版社, 1988
- 麻愛民, 「牆盤與文獻新證」, 『語言研究』, 第23卷 第3期, 2003
- 麻愛民, 「述盤補釋」, 『古籍整理研究學刊』, 第2期, 2011
- 孟蓬生, 「釋“彖”」, 『古漢語研究』, 第3期, 1998
- 朴元圭·崔南圭, 『中國古代 金文의 이해』, 서울, 신아사, 2009
- 方繼成, 「關於宗周鐘」, 『人文雜誌』, 第2期, 1957
- 徐中舒, 「西周牆盤銘文箋釋」, 『考古學報』, 第2期, 1978
- 施謝捷, 「釋“盞”」, 『南京師大學報』, 第4期, 1994
- 楊紹萱, 「宗周鐘、散氏盤與毛公鼎所記載的西周歷史」, 『北京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4期, 1961
- 楊樹達, 『積微居金文說』, 北京, 中華書局, 1997
- 葉正渤, 『金文標準器銘文綜合研究』, 北京, 線裝書局, 2010
- 吳其昌, 『金文曆朔疏證』, 臺北,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1992
- 王輝, 「秦曾孫駟告華大山明神文考釋」, 『考古學報』, 第2期, 2001
- 王輝, 『商周金文』, 北京, 文物出版社, 2006
- 王慎行, 「欽簋銘文考釋」, 『人文雜誌』, 第5期, 1980
- 于省吾, 「『師克盥銘考釋』書後」, 『文物』, 第11期, 1962
- , 『雙劍謠吉金文選』, 北京, 中華書局, 1998
- 于豪亮, 「牆盤銘文考釋」, 『古文字研究』, 第7輯, 1982
- 張亞初, 「周厲王所作祭器欽簋考—兼論與之相關的幾個問題」, 『古文字研究』, 第5輯, 1981
- 張政娘, 「周厲王胡簋釋文」, 『古文字研究』, 第3輯, 1980

- 周法高主編,『金文詁林』,京都,中文出版社,1981
- 周秉鈞,『尚書易解』,長沙,岳麓書社,1984
- 周鳳五,「『秦惠文王禱祠華山玉版』新探」,『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第72本 第1分,2001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殷周金文集成』,北京,中華書局,1984~1994
- 曾憲通·楊澤生·肖毅,「秦駟玉版文字初探」,『考古與文物』,第1期,2001
- 陳劍,「金文“豕”字考釋」,『甲骨金文考釋論集』,北京,線裝書局,2007
- 陳連慶,「晉姜鼎銘新釋」,『古文字研究』,第13輯,1986
- 陳夢家,『西周銅器斷代』,北京,中華書局,2004
- 陳英傑,『西周金文作器用途銘辭研究(下)』,北京,線裝書局,2008
- 秦永龍,『西周金文選注』,北京,北京師範大學出版社,1992
- 陳初生,『金文常用字典』,高雄,復文圖書出版社,1992
- 彭裕商,『西周青銅器年代綜合研究』,成都,巴蜀書社,2003
- 何琳儀,「幽脂通轉舉例」,『古漢語研究』,第1期,1996
- 何琳儀,「迷盤古辭探微」,『安徽大學學報』,第27卷 第4期,2003
- 何琳儀,『戰國古文字典』,北京,中華書局,1998
- 何琳儀·黃錫全,「獸簋考釋六則」,『古文字研究』,第7輯,1982
- 郝士宏,「“簠鬲朕心”解」,『古文字論集(二)』(考古與文物叢刊第4號),2001
- 洪家義,『金文選注釋』,江蘇,江蘇教育出版社,1998
- 華學誠,『揚雄方言校釋匯證』,北京,中華書局,2006
- 侯志義·劉士義·張洲·曹雄菊,『西周金文選編』,西安,西北大學出版社,1990

<Abstract>

A Study on ‘The King Said’ Part of the Bronze Inscription of Hu Gui

Kim, Shinjoo

In May 1978, Hu-Gui was unearthed in a cache from the Western Zhou Dynasty in Qijia Cun, Famen Zhen, FuFeng Xian, SahnXi Sheng. Hu-Gui, which weighs 60kg, is one of the largest bronze Guis from the Shang & Zhou Dynasties ever, thereby called the king of Guis. A bronze inscription with 124 characters of 12 lines was cast into its inside bottom. The writing in the inscription is elegant and genteel with an extraordinary spirit. As for this ritual vessel, there are two competing views over whether it was made in King Zhao’s reign or King Li’s of the Zhou Dynasty.

This paper carries out a comprehensive analysis and interpretation by exploring a large body of research conducted by many scholars with regard to the bronze inscription of Hu-Gui, an important ritual vessel belonging to the royal family, which provides criticalreference materials for research into the Western Zhou Dynasty. Judging from its pattern and wording, I consider Hu, the producer of this bronze vessel, as King Li of Zhou.

Key Words : Hu, Gui, Ancient writing, bronze inscription, King Li of Zhou, Western Zhou Dynasty

투 고 일 : 2012. 1. 10. / 심 사 일 : 2012. 1. 20. ~ 2012. 2. 10. / 게재확정일 : 2012. 2. 17.